

새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총력

전북자치도교육청, 23일까지 도내 전 학교 대상 안전점검 통학 안전관리·먹는물 관리·시설물 안전 등 7개 분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신학기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분야로는 △통학 안전관리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먹는물(정수기) 관리 △응급·경사지, 배수로, 옥상 등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교내외의 공사장 △기숙사 안전관리 △시설, 경비, 청소 등 현업근로자 산업 안전관리 △급식실·통학지원 안전관리 등 7개다.

각급 학교에서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설 노후도·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진단·조치·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점검 결과 단순 사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개학을 앞두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5일 오후 전북대학교 본부 회의실에 큰사람프로젝트 성과 공유회가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 큰사람프로젝트 벨트 장학생 선정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맞춤형 인재양성 '큰사람프로젝트' 성과 공유

전북대 취업진로처, 통합경력관리프로그램 확대 운영계획도 논의

전북대학교 취업진로처가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큰사람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 양오봉 총장과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 핵심인재선발 학생들이 모여 추후 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큰사람프로젝트 운영 성과 공유에 이어 핵심인재선발 인원과 장학금 규모 확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계획들을 논의했다.

더불어, 핵심인재들이 후배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고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졸업

후에도 재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했다.

큰사람프로젝트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자발적으로 경력개발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학년도 53명의 핵심인재를 배출했다.

특히, 각 학년에 따라 취득해야 할 벨트(WHITE, YELLOW, BLUE, RED, BLACK)를 정해 목표 달성 학생에게 등록금 감면과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준다.

또한 핵심인재를 상징하는 블랙벨트를 취득하면 취업 시 우수인재라는 총장 인증서도 받는다.

이에 전북대 취업진로처는 지난해

큰사람프로젝트 벨트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주는 '글로벌 벨트 장학금'을 1,141명에 총 11억 5,450만원 규모로 지원했다.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은 "큰사람 프로젝트는 전북대가 글로벌 Top 100으로 비상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북대가 지향하는 '학생 중심 대학 실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올 상반기 연구주제 12건 선정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는 상반기 주요 연구 주제 12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10대 핵심 과제 기반의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대전제로 연구 영역을 실력, 인성, 실력+인성으로 분류했다.

먼저 '실력' 영역에서는 전북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고교학점제시대, 변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역량과 대입제도와의 관계, 스마트

전북형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등이 있다.

이어 '인성' 영역에서는 바른 인성을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조성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실력+인성'을 포괄하는 연구로는 전북특별교육자치의 방향과 과제, 국제교류 공동수업 모형 적용에 대한 실험 연구가 있다.

한숙경 소장은 "정책연구소의 연구 시스템 개선과 연구 결과의 신속성, 10대 핵심 과제와의 연계성을 위해 2023년 말부터 다양한 연구 주제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전북교육발전의 씨앗이 되는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본격

전주비전대, 이차전지 특화 선도전문대 지원사업 2.0 통해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가 신산업(이차전지)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지난 16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이차전지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포스코홀딩스 등과의 산업체 벤치마킹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이차전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북TP 산하 이차전지인력양성지원센터 및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와 지역 이차전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병훈 총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장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이차전지 관련 우수 기술인재 양성 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바른 인성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

제2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6일 도교육청 5층 소회의실에서 제2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결과를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발표와 대화의 장이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교육정책연구 2편과 해외논문 및 기사 1편을 발표했다.

먼저 '바른 인성을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에서는 타시도교육

청 및 국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성교육 관련 비전과 목표 변화, 통합플랫폼 구축, 연령별 성취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시대, 변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역량과 대입제도와의 관계'에서는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서 대비해야 할 학업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유·보, 유·초 이음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과제'에서는 성공적인 이음교육의 요건과 유·보 전환기 의사소통 과제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사노조 "살해 협박 받는 교사 보호하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보호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전북 A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교사를 지속적으로 살해협박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

전북교사노조는 "피해 교사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침해 학생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했으나 학교 측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시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처분이 내려지지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

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교사도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자 2년 전 있었던 사안으로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것. 신고 내용은 학교 앞 슈퍼에서 해당 교사가 혼욕을 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이다. 당시 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사건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은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것이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살해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의 보호 및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하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2023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5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3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주최한 이 포럼은 2023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부서별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과포럼은 '오늘과 내일'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군산=김관용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